



20 세기는 인류에게 꿈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전 세대에서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편리한 세상이 펼쳐졌다. 페이퍼 클립, 지퍼, 브레지어, 반창고, 안전 면도날, 페니실린이 이 시대에 소개 되었는가 하면 카메라, TV, 진공청소기, 자동차, 비행기 또한 이 시대의 작품이었다. 모든 것이 급속히 움직이고 어지러운 정도로 개발 되었다. 공간이 축소되고 시간이 단축 되었다.

우리의 20세기는 좁고 깊은 우물속에서 시작 되었다. 세상 넓은줄 모르고 외치던 쇠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난하고 찌들린 모습으로 시작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그나마 정치가다운 정치가라고 일컬어지던 대원군은 경복궁의 목조

새 천년의 찬란한 아침을 열며

건물 몇채를 짓고 국고를 거덜낸 뒤 주저 앉고 말았다.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은 힘들이지 않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접수 하였다. 육체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위축으로 우리는 20세기의 절반을 허송 하였다. 그리고 처참한 전환점이 왔다. 6·25의 동족상잔이었다. 그것을 거치며 궁핍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유산이 철저히 파괴 되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가 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바깥 세계의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의 도구에 눈을 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외국 문물에 접하며 우리는 원망 했었다. 조상을 원망하고 산하의 척박을 원망 했었다. 아무리 발버등을 쳐도 선진국들을 따라 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바깥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천년의 역사와 오랜 문화민족이 갖는 전통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했었다. 조국을 일으켜 세

워 보아야겠다는 의욕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우리의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은 위축되어 있었다.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나야 했는가. 왜 좀 더 갖추어진 나라에 태어나서 젊음의 꿈을 마음껏 펼쳐 볼 기회를 가질 수 없는가”라는 모멸과 자조로 우리의 젊음은 가끔 허비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냈던 3·15와 4·19의 큰 물결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았던 영국 정치가의 절망은, 그 두개의 학생운동을 겪은 뒤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의 물결을 타고 시작된 군인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통은 있었지만, 불가능할 것 같던 경제개발을 한걸음씩 제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는 천연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어, 진실로 알몸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가난뱅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그 알몸덩어리가 진정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머리카락에서 발톱 끝까지 교육으로 손질된 그 알몸덩어리가 우리의 자원이요, 기술이요, 자본이었던 것이다.

조금 가속되자 우리세상은 화수분 같아졌다. 우리는 마술사처럼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고저 하면 무엇이건 꺼낼 수 있었다. 세상에 그 같은 일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없었다.

동유럽의 붕괴는 88 서울올림픽이 가져왔다는 말들을 한다. 20세기의 전반을 미개와 궁핍으로 보낸 민족, 이웃나라에 의해 삼십육년간 수탈당한 나라, 게다가 동족상잔으로 남아 있던 모든 자산을 태워버린 곳,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걱정들이 태산 같았다. 올림픽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첨단산업 제품들의 전시장이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질서가 합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어야 하고, 생활수준이 세계만방의 손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맞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걱정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기적이었다. 근대화작업을 시작한지 단 이십여년 동안에 바뀌어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가는 곳마다 쌓여 넘치는 물자, 수준 높은 시민들의 질서의식, 손색없는 경기운영 능력들은 그 올림픽을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사회주의 중주국인 소련에서 온 우리 동포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눈물부터 흘렸다. 그들은 울고 또 울었다. 백화점에서 경기장에서 방문한 동포의 가정에서 그들은 울었다. 조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구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더 큰 경악이었다. 그들에게 한국의 경제는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사회주의가 몇십년 동안 계획을 하고서 시작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십년 동안의 자본주의 체제가 멋지게 성취해 냈던 것이다. 그 경악이 동구의 붕괴로, 소련방의 해체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짧은 기간에 이룬 엄청난 성과는 한편으로 많은 부작용도 몰고 왔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느라, 그 성취에 도취하여 그것에 탐닉하느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거기에 맞추는 노력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적인 성취와 그에 대한 정신적 조화의 실패는 결국 IMF 경제위기라는 아직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될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환난으로 이 세기를 끝맺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치 않고 무심히 넘겼던, 버려야 할 나쁜 버릇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재앙이었다.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기적 삶에 탐닉한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온 백성들

이 함께 겪어낸 총체적 환난이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악부터 썼다. 국회의사당에서 길 거리에서 장터에서 심지어는 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선 고향부터 지르고 보았다.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백성들은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경제는 풍요를 이루어 갔지만 우리 사회는 거기에 걸맞는 존경을 받아 본적이 없었다. 짧은 시간에 돈은 좀 모았지만, 책임지는 전통이 없는 나라, 조그만 일에도 고향부터 지르고 보는 사회, 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허물은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 물불가리하지 않고 극단으로만 치닫는 쌍놈 국가로 폄하되었던 것이다. IMF라는 총체적 환난은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였다.

새로운 천년의 서광이 이 복받은 땅에 드리운다. 복 받은 땅이다. 오랜 궁핍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독립의 날을 잊은 적이 없었다. 드디어 민족상잔으로 그나마 남았던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토양으로 삼고 비료로 바꾸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내었다. 환난도 경험 하였다. 그 총체적 환난은 모두의 삶을 얼음으로 덮어 버렸지만 한번도 자신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년도 지나지 않아 그것마저 극복 하였다. 그 환난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꾸중 같은 것이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잠깐 동안의 시련을 경험하게 하는, 한눈을 파는 손자를 제길로 이끌기 위해 "이 노움"하고 꾸짖는 할아버지의 지혜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이땅에 내린 하느님의 섭리였다. 새 날을 위해 지난 세기의 마지막을 마무리 하는 하느님의 축복이었다.

새로운 천년이 온다. 이 복받은 땅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 낼 찬란한 새날이 온다. 새 천년의 모습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 소리 지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이 복받은 땅은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소리 지르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소리 지르지 않으면 모든 일은 부드럽게 해결된다. 조용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소리지르기, 폭로하기, 삿대질하기, 상대방 헐뜯기 모두를 지나간 세기의 잔재로 묻어두고 새해를 맞자.

남을 생각하며 살자.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의 일에만 몰두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다 보는 위치에 섰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세계에 우뚝 선 우리의 산업들, 조선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이제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의 상대방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번영을 설계할 때, 우리의 비약적 발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자. 우리가 번영하는 동안 그들이 멸망해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로든 함께 살아야 한다. 외국과의 사이에서 뿐이라. 외국에 나가서 까지 거침없이 드러내 우리끼리의 한심하고 부끄러운 집안 싸움들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멸시 받게 하였다. 나눠 가지자. 그럼으로서 우리는 더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머슴처럼 천방지축으로 내닫던 시대는 갔다. 깊이깊이 생각하는 자세로 새 천년을 맞아야 겠다. 그러면 어찌 우리 모든 이웃들이 돕지 않으랴. 어찌 존경받지 않으랴. 다가 오는 천년이 밝고 따뜻하지 않으랴.